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

2. 주간 이슈 3

- 이슬람금융 시장 동향과 시사점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주요 동향

◇ 美 4월 FOMC 의사록, “출구전략 논의 시작, 자산매각 언급 無”

- 출구전략을 논의했으나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미결정.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는 통화정책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
- Fed가 양적완화조치로 보유중인 국채, MBS 등의 자산매각은 언급되지 않음

◇ OECD, 1분기 회원국 GDP 전분기(+0.5%)대비 0.4% 성장

- 미국의 기후조건 악화 등으로 성장률 둔화. OECD 회원국 GDP는 작년 3분기에 전분기대비 0.7%, 4분기에 0.5% 성장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중

◇ 中, 2분기 성장률 7.4%로 전망

- (블룸버그 서베이) 종전 전망과 동일. 3~4분기 모두 7.3% 성장 전망. 금년 7.3%, 내년 7.2% 성장 전망
- (中 국가정보센터) 부동산시장 급락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

◇ 태국, 금년말까지 달러화대비 바트화가치 12% 하락 전망

- (모건 스탠리)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위기가 경기침체를 유발함에 따라, 바트화가치가 '06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

주요 동향

◇ 러시아, 중국과 4,000억달러 규모 천연가스 수출계약 체결

- Gazprom은 향후 30년간 연간 380억 입방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중국석유천연기집단(CNPC)에 공급할 계획
- 이번 계약은 가격문제로 인해 수년간 협상이 정체되어 있었으나, 이번주(20~21일)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전격 체결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국의 경제압력에 대응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

◇ 베트남, 反 중국 시위에도 외국인 자본유입 지속

- 反 중국 시위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,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본유입 지속
- (블룸버그) 베트남 정부의 反 중국 시위에 대한 대처는 영토 분쟁 등의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협력을 별개로 분리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대표

◇ 인도,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 여전 (FT)

- 차기 총리(Modi) 노력에도 불구하고, 재정상황 악화 및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속에 따라 현재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
- 前 정부통신장관(Shourie), 인도의 재정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더 나빠,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일 것이라 밝힘

- ◆ 최근 이슬람금융은 말레이시아, UAE 등 전통적 중심지로부터 중동, 동남아시아, 아프리카 여러 나라뿐 아니라 非이슬람권으로도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음. 최근 이슬람금융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.

I. 이슬람금융이란?

- 정 의 : 이슬람율법인 샤리아(*Shari'ah*)에 부합하는 형태의 금융
- ① 이자(*riba*) 수수 금지, ② 상업거래(*bay*) 장려, ③ 모호한 계약 금지, ④ 도박적 요소 제거, ⑤ 부정한 품목 금지 등의 원칙에 기반
- 형 태 : 이자 대신 율법이 허락하는 거래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존재
- 형식과 용어는 율법에 부합하지만 경제적 실질은 이미 존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
 - 이슬람의 이상을 반영하는 상품은 투자/신탁 상품이나 일반 금융상품을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매매, 리스 기반 상품 활용도가 큼 (80% 이상)

주요 이슬람금융 상품

기초거래	상 품	비 고
매 매	무라바하(<i>murabahah</i>), 살람(<i>salam</i>)	- 높은 활용도
리 스	이자라(<i>ijarah</i>)	
투자/신탁	무샤라카(<i>musharakah</i>), 무다라바(<i>mudarabah</i>)	- 이슬람금융의 理想
대리인계약	와칼라(<i>wakala</i>)	
상호부조(보험)	타카풀(<i>takaful</i>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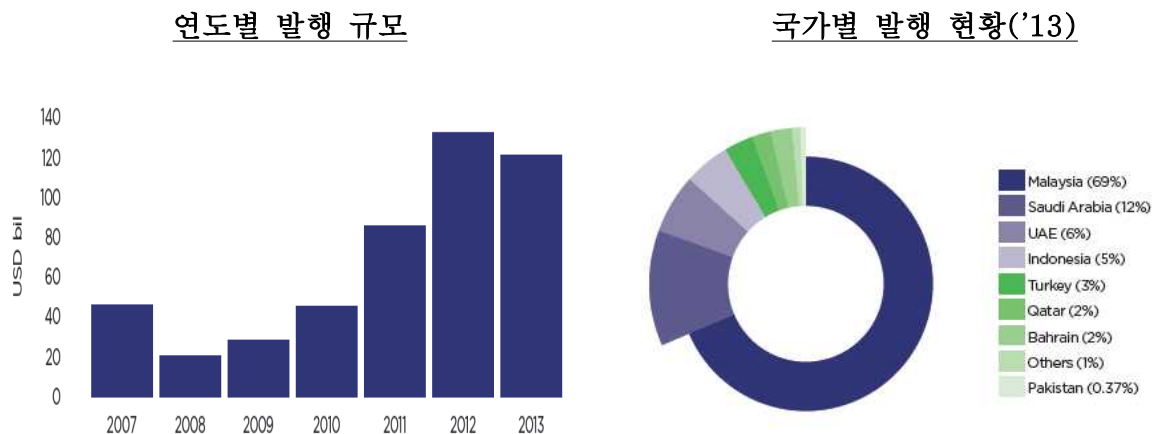
- 샤리아위원회 : 금융거래에 대한 샤리아 부합 여부 결정
- 이슬람금융기관 內 설치하며,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등 감독기관에도 샤리아위원회를 두고 있음
 - 샤리아위원회에서 부결된 거래는 일반적으로 추진 불가

II. 이슬람금융 시장 동향

□ 시장규모 및 영역 지속적 확대

- 이슬람금융 시장 규모는 현재 1.5~2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, 매년 평균 20%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임
 - 전체 이슬람금융 자산 중 비중은 은행시장 75~80%, 수쿠크* 등 자본시장 15~20%, 펀드 3~4%, 타카풀(보험)이 1~2% 수준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편임
- * 수쿠크(sukuk): 본래 의미는 ‘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’ 이나 실제로는 일반금융시장의 채권에 해당하는 형태로 구조화하여 ‘이슬람채권’ 으로도 불림
- 종래 말레이시아, UAE 등이 선도하던 시장 구조도 중동, 아프리카 역내 이슬람 국가뿐 아니라 영국, 홍콩, 일본 등 非이슬람 지역 등으로 다극화 추세

수쿠크 발행 추이



출처 : MIFC(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)

- 상품 종류도 하이브리드 수쿠크, 파생금융상품, 머니마켓상품, 무역금융(Islamic L/C 등), PEF, 리츠, 뮤추얼펀드, 선박금융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
- 영국의 非이슬람국가 최초 sovereign 수쿠크 발행 계획* 등 현재 추진중인 시도들이 성공을 거두고, 금융상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후발주자들의 시장 참여도 급속히 확대될 전망

* '14년 4월 일본 JBIC 총재도 연내 수쿠크 발행 계획을 발표

□ 법규 및 제도 정비 움직임 활발

-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정비 및 표준화는 이슬람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
 - 이슬람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은행법('83), 이슬람금융서비스법('13) 등 관련 법규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샤리아 지배구조 관련 체제(샤리아위원회 등)를 완비
- 최근 중동, 아프리카 국가들 뿐 아니라 영국, 일본* 등 非이슬람 국가들도 잇따라 이슬람금융 상품에 대한 각종 규정** 및 감독 등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추세
 - * 일본은 '08년 자국 은행 자회사들이 이슬람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, '11년 채권과 유사한 실질을 가진 거래에 대해 채권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단행
 - ** 이슬람금융 관련 법규는 '실질 우선의 원칙'에 따라 이슬람금융 상품을 동일한 경제적 실질의 일반금융상품과 같다고 간주하여 세제 등에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
- 한편, IFSB(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) 등을 중심으로 통일된 규범 없이 지역마다 달랐던 기준(샤리아, 회계 등)에 대한 국제적 표준 제정 노력도 진행중

III. 국내 현황

□ 이슬람금융 활용을 위한 기반 크게 부족

- '06~'07년부터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'11년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실패 이후 현재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
 -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무라바하와 이자라 수쿠크에 대해 일반 외화채권과 동일한 혜택*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
 - *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세(14%) 면세
- 정부내 T/F와 금융기관내 전담팀 해체가 이어져 현재 이슬람 금융 관련 연구 등은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

IV. 시사점

□ 현재 자금조달 등을 위해 이슬람금융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

- 조세 및 거래의 성격 등에 대한 규정 미비
- 조달된 자금을 샤리아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제약
- ‘중동자금 또는 이슬람자금’이 곧 이슬람금융인 것은 아니며, 이슬람 국가에서 非이슬람금융 형태의 금융거래 활용 가능
 - 시장점유율(‘13): 사우디 아라비아(53%), 카타르(25%), 말레이시아(20%), UAE(17%), 터키, 인도네시아, 시리아, 이집트, 파키스탄, 알제리, 리비아 등(10% 미만)

□ 중장기적으로 이슬람금융 활용 고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

- 우리와 경제적 교류가 많은 중동 및 동남아시아 등 이슬람국가의 일반금융 창구(conventional window)가 서서히 닫힐 가능성 있음
 - 이슬람권역內 일반금융 차입 승인규모 축소, 일반금융업 신규 허가 중지, 기념비적 사업에 대한 이슬람금융 형태의 금융제안 우대 등
- 주요 국제금융중심지 경쟁국들은 이슬람금융을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이슬람금융 중심지(hub) 표방
 - 금융사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이슬람금융에 대한 이해는 필수

□ 이슬람금융 활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샤리아 관련 역량 개발이 필요

- 율법 해석 등 샤리아에 대한 이해도 증진 필요
- 국내의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해 JBIC의 사례*와 같이 당행의 기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슬람금융 논의 선도 가능

* 05년경부터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, IFSB 가입(’07), 이슬람금융기관과의 협조유자 등을 통한 노하우 축적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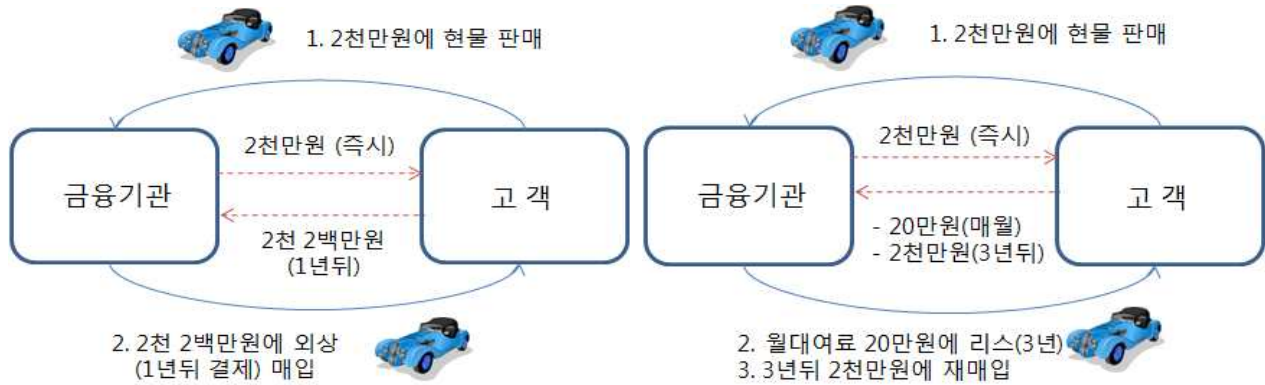
확 인	실 장 박동완
작 성 자	선임심사역 양동철

< 참 고 1 >

이슬람금융 거래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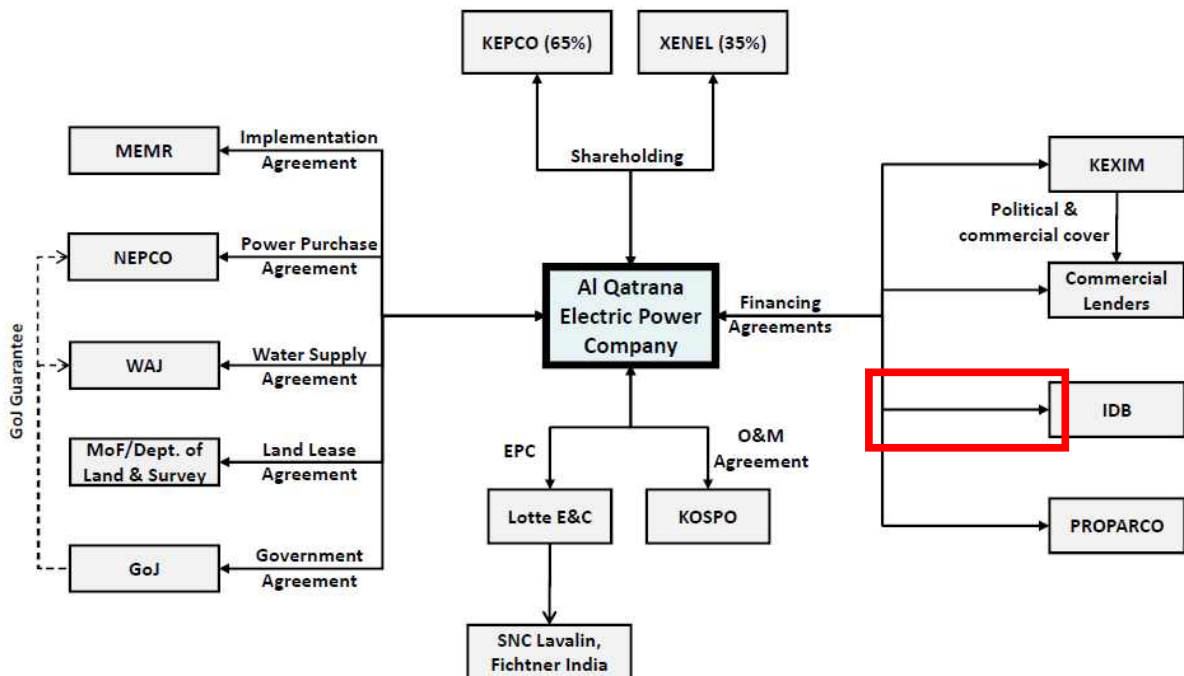
무라바하(cost-plus sale)

이자라(lease)



< 참 고 2 >

P/F 에서의 이슬람금융 활용 사례 (Al Qatrana 민자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)



IDB : 이슬라믹 트렌치. 리스(Ijarah)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일반적인 PF 관련 계약서 외에 리스계약 및 만기시 재매입 약정(purchase undertaking) 등 이슬람금융 관련 계약사항 추가

참고자료

주요 경제지표

① 외환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5. 16	'14. 5. 23	전주비
₩/US\$	1,055.4	1,024.0	1,024.6	0.6
₩/100¥	1,002.3	1,008.7	1,007.9	△0.8
CNY/US\$	6.0618	6.2295	6.2335	0.0040
¥/US\$	105.30	101.52	101.66	0.14
US\$/€	1.3736	1.3714	1.3650	△0.0064

② 채권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5. 16	'14. 5. 23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84	2.83	△0.01
미국 국채(10년)	3.03	2.52	2.53	0.01

③ 주식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5. 16	'14. 5. 23	전주비
한국 KOSPI	2,011.34	2,013.44	2,017.17	3.73
미국 DJIA	16,576.66	16,491.31	16,606.27	114.96

④ 해운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5. 16	'14. 5. 23	전주비
BDI 지수*	2,247	1,027	964	△63
HRCI 지수**	497.5	527.2	531.2	4.0

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*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⑤ 유가

(US\$ / 배럴)

유 종	'13년말	'14. 5. 16	'14. 5. 23	전주비
WTI유 현물	98.99	101.58	104.66	3.08
Brent유 현물	108.34	109.75	110.63	0.88
두바이유 현물	103.96	105.07	106.84	1.77